



겨울 별미 '감태'로 물든 초록 바다 겨울 별미 '감태'(가시파래)가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 무안공항 인근 탄도만을 초록빛으로 물들였다. 서남해안 청정 갯벌에서 나는 '감태'는 날씨가 추울수록 색깔이 검게 변하며 찰지다. 조선 간장으로 간을 맞춘 뒤 깨와 참기름으로 버무리며 씹스름한 맛에 그 '개미'가 있다. 매생이와 파래의 중간쯤 되는 해조류로, 깊은 바다에서 나는 다시마목 미역과의 감태(甘苔)와 다르다. 한 통(20kg)에 6만~7만원. /무안=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豊漁 노린 '바가지 횡포'

목포·신안 일부 유흥업소 선원들 상대 '술값 폭탄'

하룻밤 만취 시키고 "1천만원 내라"

일손 다급한 선주들 급전 빌려 갚아

최근 서남해안 해역의 조기·새우 품어 속에 선원 구하기가 어려워지면 목포·신안 일부 유흥업소들이 '뺏사람'을 상대로 바가지 횡포를 부리고 있다.

신안 앞바다에서 새우잡이를 하던 선원 김모(47)씨는 최근 선주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동료 3명과 함께 신안군 비금면 A유흥주점에 갔다. 업주의 환대 속에 여종업원과 함께 술을 마신 김씨 등은 다음날 아침 술값 계산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하룻밤 술값이 무려 1천만원이 나온 것이다.

만취해 몇 병을 마신 지 기억을 못하던 김씨 등은 술값을 계산하지 못해 붙잡혔다. 결국 선주에게 연락, 500만원을 계산한 뒤 풀려났다.

또 다른 선원 이모(51)씨도 신안의 한 술집에서 홀로 술을 마셨으나 업주가 술값 500만원을 청구, 선주를 불러 200만원을 준 뒤 빠져나왔다.

이처럼 일부 유흥업소에서 악덕 상

술이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새우잡이 맞자망의 경우 한 사람이라도 없으면 조업을 하지 못하는데 ▲선원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업주들은 조기잡이 선원들의 경우 100만~150만원(15일 기준), 새우잡이 선원은 30일 기준 100만~150만원의 선금(先金)을 받고 일한다는 특성을 악용, 선원들의 월급을 통째로 뜯어가고 있다.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선원들은 사기당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빚을 갚기 위해 또다시 배를 타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선주들도 사채업자에게 10~12%에 달하는 고금리 급전을 빌려 선원들의 술값을 대신 갚아주고 선원을 데려오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목포·신안지역 새우잡이 맞자망 수는 모두 300여 척, 한 배당 필요한 선원은 4명으로 1천200명 정도가 필요하다. 하지만 조업에 나선 선원은 700명(추정)으로 500명(41.6%) 가량이 부족한 상태다.

또 목포항을 오가는 조기잡이 어선도 선원이 부족하기는 마찬가지다. 어선 수는 유자망 44척, 안강망 53척으로 모두 97척이다. 유자망의 선원 수는 10~13명·안강망은 8명인데, 한 척당 선원 수가 8명(61.5~80%·유자망)·5명(62.5%·안강망)에 불과하다.

새우잡이 맞자망 선주 박모(53·신안군 임자면 전장포)씨는 "선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출어할 경우 일손 부

족으로 정상 조업을 하지 못하는 등 큰 차질을 빚게 된다"며 "업주들이 이를 노리고 선원들에게 바가지 요금을 써주는데, 당해날 재간이 없다"고 말했다.

목포경찰 관계자는 "최근 풍어가 계속되면서 유흥업소 횡포가 더욱 극성을 부리고 있다"며 "피해를 보았을 땐 경찰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kwangju.co.kr

단속차량에 위치추적장치 부착

억대 유사석유 판매 40대 구속

광주 관성경찰은 6일 유사석유 단속 차량에 GPS 위치추적장치를 몰래 부착, 단속을 피하면서 유사석유를 판매한 이모(41·광주시 북구 매곡동)씨를 통신보호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5년 7월3일 광산구 도산동 한국석유품질검사소 호남지소에 들어가 단속차량 4대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한 혐의다.

이씨는 유사석유 68만4천여ℓ를 팔아 7억5천여만 원을 벌어들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차량용 GPS를 서울의 전자상가에서 대당 60만~70만원을 주고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달아난 공범 1명의 행방을 추적 중이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친환경 농업 사업 발미 억대 수뢰·횡령 적발

완도 농협 임직원·공무원 등 23명 입건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가짜서류를 작성해 국가 보조금 수억 원을 부정하게 타낸 뒤 이중 수천만원을 횡령한 농협 임직원과, 이를 도운 공무원 등 23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전남지방경찰청은 6일 완도 G농협 상무 이모(46)·완도 C농협 지점장 조모(49)씨 등 농협 임직원 5명과 친환경 농자재 업자 12명, 완도군청 6급 담당 박모(43)씨 등 공무원 6명을 보조금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농협 상무 이씨 등은 지난 2005~2006년 친환경 자재 업자들과 짜고 과대 계상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수법으로 사업비를 부풀려 친환경농업 사업비 보조금 5억 원을 불법으로 지원받은 혐의다. 이씨는 이중 5천2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친환경농업 육성자금을 지원받으려던 농민이 일정비율을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데도 농자재 업자와 미리 짜고 세금계산서를 조작, 마치 농민이 부담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조금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C농협 친환경 농업 담당 김모(30)씨 등 농협 직원들은 '친환경 농자재 업자 등 5명으로부터 자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지난해 5월부터 올 4월까지 1년간 모두 26차례에 걸쳐 6천7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완도군청 공무원 박씨 등은 농협 임직원들이 가짜서류로 보조금 교부를 신청한 줄 알면서도 5억원의 국비와 지방비를 지급하고 환경 농자재가 반입된 것처럼 현장확인 서류를 작성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원룸 건물서 불 3명 입원

6일 오전 8시15분께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원룸 건물 5층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내부 70㎡를 태우고 소방서 추산 3천1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뒤 50여 분만에 진화됐다.

이 화재로 건물 안에 있던 송모(여·19)씨 등 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김모(28)씨 등 5명은 옥상과 밖으로 대피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팔순 노파에 흥기 빼앗기고 출행량

열뜨기 강도 '털미'

무안경찰 50대 영장

열뜨기 강도가 80대 할머니에게 흥기를 빼앗기고 달아났다가 붙잡혔다.

고물수집업자 강모(55·무안군)씨는 지난 4일 오후 8시10분께 인근 마을 이모(여·83)씨 집 대문이 열린 것을 보고 몰래 들어갔다. 강씨는 부엌에 있던 칼로 안방에서 TV를 보고 있던 이씨에게 "돈을 달라"고 위협했다.

할머니는 강씨의 팔 한쪽이 없고 술에 만취해 비틀거리자 칼을 빼앗은 뒤 "강도야"라고 소리치며 집을 나왔다.

강씨는 늙은 할머니가 힘껏 달려들자 깜짝 놀라 달아났다. 경찰

은 할머니에게서 인상착의를 듣고 절도·폭력 등 전과 10범인 강씨를 용의자로 보고 추적했다.

강씨는 "경찰이 찾고 다닌다"는 주민들의 말을 듣고 다음날 오후 무안경찰서 승탈지구대로 찾아가 "죄 없는 사람을 왜 찾느냐?"라고 따졌다.

하지만 경찰이 할머니를 불러 확인하는 바람에 범행이 들뜬다. 강씨는 "당당하게 말하면 경찰이 잘 모를 줄 알았다"며 "최근엔 수집할 고물도 별로 없었고 장사도 되지 않아 술 집에 돈을 훔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무안경찰은 6일 강씨를 강도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다들 물어봐... 신라시대 KCC

DS건설(주) KCC-최고, 현수교역 대타협

KCC광도, 시스템광도 생산·시공

(주)본드나리 KCC-신라시대, 배민도 대타협

실리콘·방수재·합착재·타이브

법정서 판사에 욕설·난동 '징역 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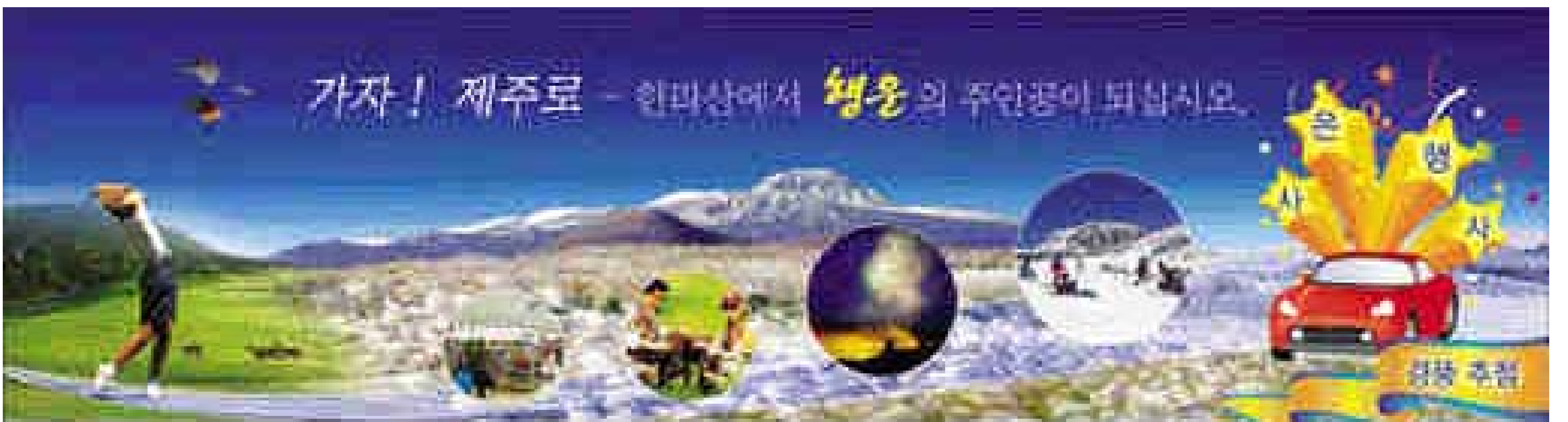
○재판 중 판사에게 욕설을 하고 법정에서 난동을 피운 간 큰 40대 피고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

○광주지법 형사 4단동 법정회 판사는 6일 법정에서 판사에게 난동을 부린 혐의(법정 모욕)로 기소된 박모(48)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

○장 판사는 "피고는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하지만, 이전에도 법정 모욕죄로 두 차례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

○박씨는 지난 7월18일 광주지법 제201호 법정에서 상소절도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다가 재판장에게 욕설을 퍼붓고 법대에 침을 뱉는 등 15분간 난동을 부렸다고.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대한민국 최초 세계사면유선으로 흥재된 제주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 겨울 한라산 탐방 사은행사 】



UNESCO 세계유산 제주 한라산